

고려 말 신홍사대부의 개인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II)

A Study on Child Rearing in the High Officials' Collection of Works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II)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 사 신 양 재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 Shin Yangjai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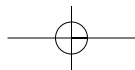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 분석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ractices of the child rearing in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This study was using the historical method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the literatures written from the late thirteenth century to the fourteenth century in Goryeo Dynasty, such as 'the Ikjaijip'(익재집), 'Mocheonjip'(목은집), 'Yangchonjip'(양촌집).

According to the results, parents, grandparents, maternal grandmother, and an elder sister played important roles in child-rearing. And parenting roles were expected to give their children affections and consistent disciplines. In terms of sustenance for children, children were provided with boiled rice as principal food and seasonal fruit and rice cake as snacks. In housing habits, children, especially boys, shared the same room with their grandfather. And children were assured of physical safety and psychological protection through cultural practices, such as taboo, prayers, humble naming, first birthday celebration, and dreams of forthcoming conception. Finally, disciplining of children was focused on studies for Confucianism and shaping basic habits for cultivation of mind.

주제어(Key Words): 양육역할(parenting roles), 아동보호(protection for children), 아동교육(disciplining children)



1. 서론

Cole(1998: 12-14)은 아동발달 연구에서 아동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문화적-맥락 관점(cultural-context)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적 맥락 관점은 기존 발달이론과 달리 생물 요인과 환경 요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문화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이 중재된다고 보며, 그 중재 요인인 문화는 역사적으로 특정화된 환경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Super와 Harkness(1992, 1998)는 발달적 니치(developmental niche)의 개념으로 아동의 미시 환경이 문화적으로 조절되는 과정임을 보여 왔다. 발달적 니치는 양육자의 심리, 아동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문화적으로 조절된 아동 양육 관습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는데, 특히 양육자의 심리를 Harkness와 Super(1992)는 부모의 민속이론(parental ethnotheory)라 하여, 이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작용하여 특정 발달환경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 민속이론은 D' Andrade와 Strauss(1992)의 문화모형(cultural models)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있어 실재에 대한 해석 틀인 동시에 동기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Lightfoot와 Valsiner(1992)는 문화와 부모의 신념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문화는 다양하고 이질적 실체로서 개인문화와 집단문화로 구별되는데, 집단문화는 개인에게 집단의 의미나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 개인은 집단이 제공한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개인 고유의 신념체계를 구성하여 양육의 개인문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Chao는 아동 양육 개념의 문화적 적합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1994)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는 통제적이고 권위적 양육행동(authoritarian parenting)에 대해 서구유럽과는 다르게 해석함을 보여주면서, 양육방식에 대한 토착적 개념(indigenous concept)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Baumrind의 양육방식 유형화는 순수한 이론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구성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의 개념은 청교도의 종교적 영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원죄적 관념에서 아동에게 가혹한 훈육을 하여 아동의 의지를 꺾고 일방적 지배를 하여 원죄로부터 영혼의 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역사적 배경을 지닌 개념으로, 서구 부모에게는 권위주의적 양육의 엄격성이 부모의 지배, 적대감, 공격성, 불신의 표현과 같이 이해된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족 상호간의 의존성과 조화가 강조되는 유교적 원리(Markus & Kitayama, 1991; Matsumoto, 2000)에서는 양육의 엄격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보호, 관여로서 이해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엄한 통제나 지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행하게 된다. 이처럼 양육행동에 대한

개념들이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개념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관없이 적용한다면 현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평가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hao(1994)는 문화적 맥락이 다른 서구 심리학에서 벗어나서 동양의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문화적 틀 내에서 양육개념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Chao의 지적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아동 양육에 관련되는 이론적 개념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서구의 이론에 보편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편적 증거들로 적용해왔고, 그 결과 우리의 현실적 문제화의 괴리 현상을 심화시켜 왔음(유가효, 1995)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ghtfoot와 Valsiner(1992)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시기를 달리하여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개념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상이한 인식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갈 때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하위체계로서 병존하게 되어, 집단문화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20년대와 30년대 신문의 아동양육 관련 기사에서 서구식의 아동 양육, 즉 아동이 중심이 되는 양육을 보급하여 생활화하자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식자층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강조점이 이전의 전통적 양육 개념에서 서구식 아동양육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을 보였다(신양재, 김영주, 1992). Lightfoot와 Valsiner(1992)의 논거대로, 아동양육 인식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지배적인 이념이 그전의 것을 소멸시키거나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닌 관심과 강조의 변화의 차이일 뿐으로 모순적으로 함께 공존해 간다고 본다면, 우리의 전통 사회에 있었던 아동이나 양육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역동적인 정교화를 통해 전승되어, 근대화 이후에도 도입된 서구적 인식과 함께 모순적으로 존재해 왔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은 먼저 전통사회에 있었던 아동 양육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한국 전통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김영옥, 백혜리, 2000; 문미옥, 류칠선, 2000; 백혜리, 1999, 2000, 2001; 손직수, 1993; 신양재, 1994c, 1995a, 1995b, 2004a, 2004b; 우영희, 1989; 유점숙, 1992; 이정덕, 송순, 1993)들은 대개 그 대상 시기가 조선시대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들(신양재, 1994a, 1994b, 1995c)이 부족하여 아동양육 전통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신양재, 1994b)나 고려시대(신양재, 1994a)에 관한 연구가 주로 왕조사를 중심으로 기술된 문헌들로 이루어져서, 아동양육과 같은 일상생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른 종류의 사료에 의한 보완

이 필요하여 다른 연구(신양재, 1995c)에서 개인 문집을 분석하였다. 문집은 다양한 서술형식과 내용¹⁾의 글이 실려 있어, 당시의 상세한 생활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다. 이에 몽고간섭 이전에 저술된 문집을 분석한 이전 연구(신양재, 1995c)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13 세기말에서 14 세기의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저술된 개인 문집을 분석하여 자료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한국사의 획기적 사건인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²⁾, 다음 왕조인 조선조를 뒷받침해 줄 통치이념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신앙이나 생활 풍습이 불교적이어서 유학이 그 기능함에 제약이 많았으나, 성리학이 수입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이념으로도 기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배종호, 1988: 201-206)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3세기 말에서 14세기는 사회적 이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왕조도 교체되는 시기로서, 이시기에 대한 연구는 이 때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를 좀더 풍부히 해주어, 아동 양육의 전통이 형성되는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해에 이를 수 있게 해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의 개인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문집에 관한 전 연구(신양재, 1995c)에 이어 고려 말의 문집에 나타난 아동 양육을 아동에 대한 개념화, 아동일상생활, 아동양육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 중에서 먼저 아동에 대한 개념화와 아동의 일상생활상을 연구 (I)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측면인 아동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양육 주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당시의 아동양육 행태를 보호와 교육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의 아동양육을 고찰하기 위해서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저술된 개인 문집을 분석하였다. 문화적 맥락 이해에서 내부자 관점을 우선시 하고(김영찬, 1982), 가급적이면 실제로 행해진 행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우리 선조가 저술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몽고간섭 이전 시기의 문집에 대한 고찰(신양재, 1995c)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13세기 말과 14세기의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저술된 이제현(李齊賢)의 익재집(益齋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을 대상 문헌으로 하였다. 이제현(1287 충렬왕 13 - 1367 공민왕 16)은 뛰어난 유학자로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³⁾을 했다. 이제

현의 익재집(益齋集)은 연보(年譜), 익재난고(益齋亂藁)⁴⁾, 습유(拾遺), 역옹패설(穢翁穢說)⁵⁾ 등과 서(序), 발(跋), 중간발(重刊跋) 및 묘문(墓文) 등이 집성되어 있는 문집이다. 특히 익재난고는 역옹패설과 함께 우리나라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되며, 역옹패설은 파관문학(裨官文學)의 대표적 작품으로 익재가 56세 때(충혜왕 3년)에 칩거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파관집」과 「보관집」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당대의 현실과 문학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중간본(순조 14, 1814)을 대본으로 한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의 익재집을 분석하였다.

이색(1328 충숙왕 15 - 1396 조선 태조 5)은 이제현의 제자⁶⁾로서 당시 성균관의 교수진을 이끌면서 성리학 학풍을 수립하였고, 성리학설 탐구에 주력하여 주자학에서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이기설(理氣說)을 폈다(한국철학사, 1987: 122-125). 이색의 목은집(牧隱集)은 시문과 산문을 구별하여 편집되어 있는데, 시고(詩藁)는 권 1-35까지로 시 팔천여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재(題材)가 폭넓어서 당시 행해지던 풍속을 제재로 잡아 쓴 내용도 있어 생활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민족문화추진회편, 1979: 18), 고려 말의 사회를

- 1) 문집에는 문체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주장하는 글을 論, 언행의 시비를 논하여 결단하는 글인 辯, 서문을 序, 발문을 跋,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글 奏, 논의 하여 사의(事宜)를 정하는 글 議, 의견을 상신하는 글을 書, 사물에 대한 의리(義理)를 풀어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의 글 說,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인 勅令, 비석에 쓰인 글을 碑文, 사적(史的)인 기사(記事)를 기록한 글인 誌, 일정한 체계 없이 여러 가지 글을 雜文, 사실대로 적은 글을 記 등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있다.
- 2) 성리학 수용시기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으나(변동명, 1995), 수용 초기의 성리학은 조선조의 사본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윤리 도덕 실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윤리적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덕이 있는 사람에 의한 교화를 통한 이상정치 구현의 실천적 성격을 지녔다(변동명, 1995: 64-92).
- 3) 이제현은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백이정(白頤正)의 제자이고, 초기의 성리학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사서와 경서를 연결하고 학문을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경세치용(經世致用)면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유학을 수립하였다(신용국, 1997: 84)고 평가되고 있다.
- 4) 익재난고는 10권 4책의 시문집(詩文集)인데, 권1-4에 시, 권5에 서(序), 권6에 서(書), 권7에는 비명(碑銘), 권8에는 표(表), 권9에는 상하로 나누어 상에는 세가(世家), 하에는 사찬(史贊)과 서(序), 책문, 논, 송, 권10에는 장단구(長短句)가 실려 있다.
- 5) 역옹패설은 전 후집으로 나누어 전집(前集)에는 1권 17화(話), 2권에 43화, 합 60화로서, 서(序), 역사, 인물일화, 골계(滑稽) 등이 실려 있다. 후집(後集)은 1권에 28화, 2권에 25화, 합 53화로서, 서(序)와 시문이 주로 실려 있다.
- 6) 이색은 이제현의 학통을 계승한 바탕 위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성리학을 연구함으로써 그의 학문은 국제적 수준이었고, 도덕과 문장뿐만 아니라 경세 면에서도 뛰어난 학자였다.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 김종직(金宗直), 변계량(卞季良) 등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알아보는 사료로 귀중하다. 문고⁷⁾는 당시 이색이 교유한 지식인 과 정치가들의 전기적 자료가 대부분으로 정치, 사회에 관한 원천적 사료로서 귀중한데, 「고려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었으며, 불교에서 유교로 전향되는 과도기적 일면을 보여준다(한국민족문화대사전 8, 1991: 42-43)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26(인조 4년)에 중간(重刊)한 것을 대본으로 한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2003)의 목은집을 분석하였다.

권근(1352 공민왕 1- 1409 조선 태종 9)은 이색의 문생으로 학통을 이었고, 성리학적 이론을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도해한 「입학도설」을 저술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권근의 양촌집(陽村集)⁸⁾은 시, 기(記), 서, 설(說), 전(傳), 발어(跋語), 명(銘), 찬(贊), 제문, 사대표전(事大表箋), 본조표전(本朝表箋), 사직전(辭職箋), 차자(箭子), 계본(啓本), 소어(疏語), 청사(靑詞), 교서(敎書), 상서(上書), 잡저, 동국사략론(東國史略論), 동현사략(東賢事略), 비명, 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동국사략론과 동현사략은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서(序), 발(跋), 지(誌), 기(記) 등은 문학사뿐만 아니라 의약, 인쇄술, 천문, 지리, 학교, 교육, 과거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훌륭한 사료가 된다(민족문화추진회, 1979: 7)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74(숙종 즉위년)에 간행된 권주(權儔)의 북각본을 대본으로 한 민족문화추진회(1979)의 양촌집을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분석대상문헌 안에서 아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여, 그 사례를 양육대상인 아동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례, 양육 관련 사례로 일차로 분류하였다. 이들 자료 중에서 먼저 연구 (I)에서 아동 인식과 연관되는 자료로 아동 본성, 아동 발달, 아동 특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개념화를 분석하였고,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과업과 놀이를 중심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나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제 양육 행태를 담고 있는 사례를 분석 자료로 하여 당시의 아동 양육 수행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양육주체, 양육의 보호차원, 그리고 교육차원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육주체: 당시에 아동양육을 담당하여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역할기대에 대한 내용이며, ② 보호차원: 아동의 심신유지에 필요한 지지(支持)활동으로서, 이를 아동의 신체적, 생리적 기본 욕구충족과 건강 유지를 위한 물질 제공에 관한 물질적 측면과 아동의 안전감, 소속감, 사랑, 자존감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심리적 측면의 두 하위 범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③ 교육차원: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의도적 노력으로서, 여기서는 가정 외부에서 행해진 교육은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자녀 훈육을 중심으로 내용과 원리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III.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 분석

1. 양육주체

문집에 나타난 아동 양육을 수행하는 양육주체에 대한 관련 내용은 주로 부모 역할에 관한 것으로, ①부터 ②까지는 부모역할, ③부터 ⑩까지는 부성역할, ⑪부터 ⑰까지는 모성 역할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一家亦天地 位六由吾誠 父母與妻子 等級何分明 恩愛貫以一 禮節隨以生(牧隱詩藁 卷 22 有感)
- ② 父母常懷愛子情 願無災害到公卿(牧隱詩藁 卷 28 示諸子)
- ③ 嬰孩強聒 專憑慈父之憐(益齋亂藁 卷 8 表 爲公主乞賜稱號陳情表)
- ④ 吾家犬子今何在 辛苦當年教一經(益齋亂藁 卷 4 詩 門生鄭學士掌試後賀宴席上)
- ⑤ 致君政可師三代 有子何妨教一孫(牧隱詩藁 卷 11 又賦)
- ⑥ 強揩病目讀韓文 擬向殘年教子孫 最是一篇原道在 且從格物更燭溫(牧隱詩藁 卷 7 贈李浩然)
- ⑦ 老父教兒難造次 眼昏多翳鬢毛華(牧隱詩藁 卷 12 又賦)
- ⑧ 君子之道 在於正家 欲正家 先正心 欲正心 先收放心 放心 一毫不敢肆是已(牧隱詩藁 卷 14 偶題)
- ⑨ 凡爲人父兄 威儀當有常 天性不可變 上帝赫有光 千載想孟母 三遷終允臧(牧隱詩藁 卷 15 步履)
- ⑩ 我游廊廟十八載 兒肥耳絕啼飢聲(牧隱詩藁 卷 26 燈檠歌)
- ⑪ □□或有妻兒計 濟得一家非不賢(牧隱詩藁 卷 28 卽事)

①의 내용은 “한 집안도 역시 천지와 같아서 위육(位育)⁹⁾이 내 성의로 말미암으니 부모와 처자와의 사이는 등급이 매우 분명하여 은혜와 사랑 하나로 관철시키면 예절은 이를 따

7) 문고(文藁)는 권 1-6에는 기(記) 75편, 권 7-9는 서(序) 39편, 권 10은 설(說) 21편, 권 11-13은 표(表) 22편, 찬(讚) 11편, 잠(箴), 전(箋), 변(辨), 작(作), 후(後), 발(跋) 등 33편, 권 14-20은 비(碑), 명(銘), 전(傳) 등 35편이 수록되어 있다.

8) 권 1-10에 시 980수, 권 11-14에 기(記) 45편, 권 15-20에 서 66편, 권 21에 설(說) 13편, 전(傳) 3편, 권 22에 발어(跋語) 21편, 권 23에 명(銘) 7편, 찬(贊) 8수, 제문, 13편, 권 24에 사대표전(事大表箋) 21편, 본조표전(本朝表箋) 16편, 권 25, 26에 사직전(辭職箋) 1편 차자(箭子) 3편, 계본(啓本) 1수, 권 27, 28에 소어(疏語) 23편, 권 29에 청사(靑詞) 14수, 권 30에 교서(敎書) 9편, 권 31, 32에 상서(上書) 12편, 권 33에 잡저 11편, 권 34에 동국사략론(東國史略論), 권 35에 동현사략(東賢事略), 권 36-38에 비명, 권 39, 40에 묘지 5편,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9) 위육(位育)은 중용 제 1장에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에 편안해지고 만물이 생육을 이루게 된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한데서 온 말이다.

라 생긴다”라고 하여 부모 역할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②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 하니 부디 몸 다치지 말고 공경(公卿)이 되었으면”이라 하여 자식에 대한 사랑이 기대되고 있다. 부모 역할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부성의 양육 역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③에서 “어린 아이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것은 오로지 인자한 아버지가 어여뻐 여김을 믿기 때문이다”라 하여 부성의 역할로 자녀에게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을 들고 있다. ④에서는 “우리 집 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당시 글(經)을 가르치느라 고생만 했다”라고 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경서 공부를 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⑤에서도 “요순임금 만들려면 삼대를 본받아야 하지만 자식에게 경서 한 권 가르침에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그리고 ⑥에서는 “억지로 병든 눈 닦으면서 남은 생애에 자손을 가르치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도 한 편이 있어 우선 격물로부터 다시 연구를 거듭하노라”라고 하였고, ⑦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자식 교육은 경홀히 못할 일인데 어른어른 눈은 어둡고 귀밀털도 하얗다”라고 하여 자녀의 학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부성역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⑧에서는 “군자의 도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데 있으니, 가정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방심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방심을 거둬들이는 방도는 털끝만큼도 감히 방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여 부성 자신이 마음을 멋대로 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개인적 수양을 해야 하며 이러한 수기(修己)가 부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⑨에서 “무릇 남의 부형이 된 사람들은 의당 위(威儀)가 항상 있어야 하며, 천성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니 하늘이 밝게 굽어보고 있다. 천재(千載)에 맹자 어머니를 상상하노니 삼천지교는 참으로 훌륭하였다”라고 하여, 부성이 평소에 보이는 모습에 의해서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늘 위엄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부성이 아동의 중요한 교육 환경임을 알고, 자신의 수양에 힘써서 마음가짐과 일상 행동을 바르게 유지해야 하는 것을 부성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⑩에서 “나는 조정에 벼슬한 지 열 여덟 해 동안에 아이들을 잘 먹여 배고파 우는 소리 없었다”라고 하여 부성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부양(扶養) 역할 수행이 언급되었고, ⑪에서도 “처자를 먹여 살릴 생각이 있다면 한 집안 구제하는 것도 못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부양에 대한 부성 역할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

한편 모성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⑫ 乳養從慈母 維持倚大臣(牧隱詩藁 卷 19 興國寺大街)
 ⑬ 訓子有則 士也其難 惟母時克(益齋亂藁 卷第 7 碑銘 大元制封遼陽縣君…李氏墓誌銘并序)
 ⑭ 教子孫慈而法(陽村先生文集 卷 39 墓誌類 貞慎宅主權氏墓誌銘并序)
 ⑮ 雖嘗一子甚愛之 教督甚勤 每致縫掖十數輩於家塾 令與讀書 夫人爲設饌具 餉之不怠(陽村先生文集 卷 40 墓誌 有明朝鮮國贈辰韓國夫人鄭氏墓誌銘并序)
 ⑯ 剪來黃葉似金錢 止得兒啼最得權 誰道阿婆多狡獪 五觀此策却天然 聖人立政皆因下 稚子無知必有先 看取巖巖新氣像 只因當日解三遷(牧隱詩藁 卷 6 記舊作)
 ⑰ 婦人教子至三遷 昆季才名總是賢(陽村先生文集 卷 7 詩類 卞開城妻氏挽詞)
 ⑱ 孫知樞打廉按慶尙 人有弟與姊相訟者… 公因諭之曰 父母之心 於兒女均也 夫豈厚於長年 有家之女 而薄於無母鬻齡之兒耶 顧兒之所賴者姊也 若遺財與姊等 恐其愛之或不至 養之或不全耳…(樸翁稗說 前集 2)

먼저 ⑫에서 “젓 먹여 기름은 자모(慈母)를 좇아 하고 국가의 유지는 대신에 의거하니”라고 하여 모성의 특성으로 인자함을 기대하고 있다. ⑬에서는 “아들 훈계에 법이 있었다. 선비로도 어려운 것인데 어머니로서 이를 능히 하였다”라고 하여 모성이 자녀를 일관성이 있게 훈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⑭에서도 “자손을 가르침에는 자애롭고 법도가 있으며”라고 하여 모성이 일관성 있고 자애롭게 자녀를 교육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⑮는 “비록 외아들이어서 매우 사랑하였으나 가르침에는 심히 근엄하였고, 언제나 선비 10여명을 그 사숙에 데려다가 함께 글을 읽게 하고 부인은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자애로움과 엄한 교육을 모성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인자하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엄한 훈육을 모성 역할로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⑯에서는 “누린 나뭇잎 베어서 금전같이 만들면 아이 울음 그치는데 가장 유효하거늘 아이 엄마가 교활하다 그 누가 말했나? 내 보기엔 이 꺾기 도리어 자연스럽다. 성인의 정사는 모두 민심을 따르거니와 어린애는 무지하나 앞서게 있으니 우뚝한 새로운 기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일에 삼천지교를 할 줄 안 때문이다”라고 하여 아동의 현재 상태에 알고 이에 맞추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모성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의 이후의 성취는 모성의 이러한 지혜로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⑰에서도 “부인이 자식을 가르치느라 세 번 이사하였으니 근계의 재명이 모두 다 어진 사람이다”라 하여 자녀 교육에서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을 모성 역할로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부모이외의 사람이 아동 양육을 수행한 대목도 있

었다. ⑧은 누이가 양육을 담당한 경우로 “지추 손변렴이 경상도 안찰사가 되었을 때 남매간에 서로 소송하는 자가 있었다…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나 딸에게 똑같은 것이다. 어찌 장성하여 출가한 딸에게 후하고, 어머니도 없는 아들에게 박하였겠는가? 돌아보건대 어린아이가 의지할 곳은 누이뿐이다. 만약에 유산을 누이와 똑같이 남겨 주면 그 사랑이 혹시 지극하지 못할까 양육하는 것이 혹시 완전하지 못할까 염려한 것이다…”라고 하여 아동 양육에서 사랑과 지극한 양육을 중심적 일로 보고 있다.

2. 보호

양육의 보호 차원은 아동의 심신유지에 필요한 지지(支持) 활동으로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두 범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①부터 ⑨까지는 아동의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고, ⑩부터 ⑫까지는 안전과 위생과 같은 신체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索飯啼時清爛熳 啖瓜行處色愉怡(牧隱詩藁 卷 24 卽事)
 - ② 敬僕清晨索飯啼 蒼黃乳母走東西 新泉活火鑪中沸 冷日寒雲屋上低(牧隱詩藁 卷27 晨興)
 - ③ 獨憐老牧貧無物 未得肥時已啖兒(牧隱詩藁 卷 9 園中雜詠 栗)
 - ④ 又還窻際更彷徨 忽然馳向東山去 梨栗從他乞得嘗(牧隱詩藁 卷 25 吟兒戲)
 - ⑤ 牧老貧雖甚 山梨晚更繁 從容享賓客 爛熳啖兒孫(牧隱詩藁 卷 25 李光輔判事索梨)
 - ⑥ 兩兒相唱和 俚語似街童 樂矣方怡悅 俄而□□攻 凌晨出戶外 冒雨走庭中 數數求梨棗 牽衣向祖翁(牧隱詩藁 卷 26 冬雨)
 - ⑦ 稚子啼呼索點心 老婆吹火石鑪深 醬湯油餅烹來軟 □□尋常驕語音(牧隱詩藁 卷 28 兒啼飢一首)
 - ⑧ 孟孫語且臥 仲孫方爛熳 老翁強起早 日上東南天(牧隱詩藁 卷 31 曉吟)
 - ⑨ 諸孫步甚健 走則恐顛跌 老翁導之行 虛堂共軒輊(牧隱詩藁 卷 16 諸孫)
 - ⑩ 敬奴三舍也 坐笑似相知 扶立脚猶弱 牽來顏甚怡 須臾啼索乳 老病戲題詩(牧隱詩藁 卷 21 敬奴來)
 - ⑪ 三郎新沐罷 和氣卻陰邪 髮潤身彌健 頭輕氣自華(牧隱詩藁 卷 28 新沐)
 - ⑫ 日午羣童赤不衣 相迫環走似舩麾(牧隱詩藁 卷 24 卽事)
- 먼저 ①부터 ⑧까지는 그 당시의 아동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①에서 “밥을 달라고 올 때는 정이 천진난만하고 오이 먹으며 다닐 때는 희색이 만면하다”에서 밥과 이외의 먹을거리로 오이를 먹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는

“경복이 맑은 새벽에 밥 달라고 올때가 유모가 허둥지둥 이리저리 달린다. 샘물은 타는 불로 솥 안에서 설설 끓고 썰렁한 햇살 찬 구름은 옥상에 나직하다”라는 내용에서 솥에 샘물로 밥을 지어 유아의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기보다는 원하는 때에 먹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③부터 ⑥까지의 자료에서 당시에 아동에게 간식으로 주었던 과일들을 알 수 있다. 즉 ③에서는 “유독 가련하다 목은은 가난하여 먹을 게 없어(밤이)여물기도 전에 벌써 아이들을 먹인다”에서는 아이들에게 밤을 주었고, ④에서는 “갑자기 죽마를 달려 동산으로 가서는 그 곳으로 배와 밤을 얻어서 먹는다”에서는 배와 밤을 먹였고, ⑤에서는 “목은 늙은이 비록 몹시 가난하나 산돌배가 늦게 다시 푸짐한지라 조용히 빈객들을 접대하고 천진한 아손을 먹인다”라고 하여 배를 먹게 했으며, ⑥에서는 “맑은 새벽부터 문을 열고 나가서 비를 맞으며 마당을 쪼다니다가 자주자주 배랑 대추랑 달라면서 할아버지의 옷을 끌어당긴다”에서 배와 대추를 주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⑦에서는 “어린애가 울며불며 먹을 것을 졸라대니 할머니가 돌솥 걸고 불을 호호 불어대서 장국이며 유병(油餅)을 먹음직스럽게 데워 오자 울던 아이 평소처럼 귀엽게 재롱을 떠는구나”에서 간장으로 간을 한 맑은 국(장국¹⁰)과 기름에 지진 떡¹¹)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⑧에서는 “맏손자가 뭔가 웅얼거리며 누워 있고 둘째 손자는 한창 곤히 잠들고 늙은 할아버지 억지로 일찍 일어나 해가 불쑥 동남쪽 하늘에서 떠오른다”에서 당시 아동의 주생활의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두 손자가 할아버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아인 경우 할아버지와 함께 기거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⑨에서는 “손자들 발걸음 아주 건장하나 달리다가 넘어질 게 염려되어 할아버기가 애들을 인도해 다니며 빈 당에서 함께 오르내리니”에서, 손자들이 놀 때 할아버지가 함께 함으로써 신체적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⑩에서는 “경 늙은 셋째 집 아이인데 앉아 웃는 게 서로 아는 듯하다. 불들어 세우면 다리는 약하지만 끌어오면 얼굴은 매우 기뻐하네. 잠깐 뒤에 젓 달라 올 길래 늙은이가 장난삼아 시를 적는다”에서 젓먹이 유아를 불들어 세워서 걸음마를 연

10) 장국은 국의 한 종류로서 끓이기 조리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일상식으로 기본이 된 것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은 맑은 장국, 곰국, 토장국, 냉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맑은 장국은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국을 맑게 끓인 국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1991: 581).

11) 유병(油餅)은 수수가루,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진 유전병류로서, 삼국시대에 술을 쌀가루에 반죽하여 찐 기주떡, 쌀가루에 콩이나 팥을 섞어 찌서 만드는 설기류와 함께 고려시대로 전승된 떡의 종류이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3, 2001: 402-403).

습시키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유아를 곁에서 붙들어 주고 걷게 해 봄으로써, 다리에 힘도 기르고 걸음걸이도 배우는 것을 안전한 상황에서 해 볼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⑪에서는 “셋째 아이를 이제 막 씻기고 나니 부정한 기운 물러나고 화한 기운이 만발한다. 윤기 나는 머리칼에 몸은 더욱 건실하고 머리로 가뿐하여 기운이 절로 피어난다”라는 대목에서 유아를 목욕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목욕이 아동에게 건강한 몸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⑫에서는 “한 낮의 아이들이 옷을 안 입고 발가벗은 채 서로 쫓아 빙빙 돌며 팔로 지휘하는 것 같다”라는 대목에서 한 여름의 더위에서 체온조절 기능이 아직 미숙한 유아들은 쉽게 과열되기 쉬우므로, 옷을 벗게 하여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 보호의 심리적 측면에서 당시의 아동 양육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된 ⑨와 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기능이 민첩하지 못한 유아들과 함께 해줌으로써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동에게 심리적 지지와 안전의 대상이 되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자료들에서도 아동에 대한 심리적 보호의 양육행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⑬ 仲孫二雛在南里 祖母七日思不已 清晨特遣蒼頭去 却道移居有宜忌… 鷄林宅主是母家 護惜由來盡恩義 雖然拘忌意則厚 且止且止復且止 祖母惘然又深感 願保我兒永如此(牧隱詩 藁 卷 13 敬僕在南里招之不來)

⑭ 老境心誠愛兒子 保全嘉惠望神明(牧隱詩 藁 卷 15 卽事)

⑮ 仲孫孤矢日 丐福飯僧初(牧隱詩 藁 卷 17 晨興卽事)

⑯ 吾家犬子今何在 辛苦當年教一經(益齋亂藁 卷第 4 詩門生鄭學士掌試後賀宴席上)

⑰ 吳六和判書 請僕名其子 大作會 林五宰在座 又請改子名(牧隱詩 藁 卷 25 吳六和判書請僕名其子大作會)

⑱ 前年爾初降 昨日我能歸 提弄森如昨 相思熟謂非(陽村先生文集 卷 5 詩憶黔童)

⑲ 初母鄭氏夢 天降翠幕 有童子肌肉如冰玉 就視之 遂合掌躍入鄭氏懷 及寤 如納斗大石胞中 砒藥之不效(益齋亂藁 卷 7 碑銘 海東曹溪山贈諡慧鑑國師碑銘)

⑬에서 “중손 두 어린애가 남리에 가 있는데 조모가 철일 동안 자나 깨나 생각하다가 이른 새벽에 특별히 하인을 보냈더니 이사한 집에 금기할 것이 있다 한다… 계림택주는 바로 아이의 외가댁이라 전부터 은의를 다해 아이를 보호했으니 비록 금기라곤 하나 뜻인즉 후하다. 또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리기에 조모는 서운해 하면서도 깊이 감격하여 길이 이렇게 내 아이 보호해주길 원한다”라는 내용에서 당시에 이사한 집에는 금기할 것이 있어 아동을 그로부터 멀리 있게 하여 보호해주는 양육행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기는 가리는

일, 금하는 일로서 더러움이나 오염 또는 부정에 걸리지 않고 청정, 맑음, 깨끗함을 보장하기 위한 신앙적 이유뿐만 아니라, 걸보거나 크기 등이 비정상적인 것, 낯선 물건이나 사람, 낯선 곳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두려움, 무서움, 위험 감지 등의 심리적 동기가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1991: 198-199). 이처럼 생활 속에서 특정 대상이나 행동을 금기시키는 것은 신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호를 위한 문화적 장치로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에 의해서 아직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⑭에서는 “늘그막의 마음은 진정 아이를 사랑하기에 잘 보전해 주길 신명께 바라는 바이다”에서, 그리고 ⑮에서 “둘째 손자가 태어나던 날이며 절에 시주하여 복을 비는 일 처음이다”라는 내용에서 아동의 안녕과 발전을 신께 기원하는 양육행태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심리적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 자신 역시 심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양육행태라 볼 수 있다.

그밖에 ⑯부터 ⑲까지는 양육과 관련된 당시의 관행들이라 볼 수 있다. ⑯에서는 “우리집 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당시 글 가르치느라 고생만 했다”라는 표현에서 자녀를 견자(犬)라 하여 비칭으로 부르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⑰에서는 “오육화 판서가 나에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하면서 연회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임오재가 또 자기 아들 이름을 고쳐주기를 청하였다”에서, 당시에 이색과 같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이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길 부탁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⑱에서는 “지난 해 네가 처음 태어났기에 돌잔치엔 나도 집에 갔었다. 재룡이 눈에 삼삼하여 어제 같으니 보고픈 이 생각을 누가 그르다 하겠는가?”라는 내용에서 출생으로부터 일주년이 되는 날에 돌잔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⑲는 “처음에 어머니 정씨의 꿈에 하늘에서 파란 포장이 내려오는데 살결이 빙옥 같은 동자가 있으므로 가서 보자 동자가 합장하며 정씨의 품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으로 해감국사(1240 고종 27-1319 충숙왕 6)의 태몽에 대한 기록으로, 태몽은 아동의 장래에 대해 암시하는 양육관행으로 행해졌다.

3. 교육 차원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는 교육차원을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행해진 행태와 가정 외부에서 행해진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동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행해진 교육을 내용과 원리의 두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먼저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致君政可師三代 有子何妨教一經(牧隱詩藁 卷 11 又賦)
 ② 教子傳經豈貴金(陽村先生文集 卷 8 詩類 得禁字題孟先生詩卷)
 ③ 學分大小各因時 積德須知必有基… 告爾子孫宜務本 從容中道莫越岐(牧隱詩藁 卷 13 睡起聞雞聲偶記…八九以戒子孫云)
 ④ 諸孫步甚健 走則恐顛跌 老翁導之行 虛堂共軒輊 清風吹兩髦 意氣自超逸 願汝守家教 詩書庶逢吉(牧隱詩藁 卷 16 諸孫)
 ⑤ 讀書萬卷亦安用 明體達之忠孝耳 且心大學一部書 靜定然後求其餘 致格齊平盡在此 他日吾言其忽諸(牧隱詩藁 卷 17 題宗孫詩卷)
 ⑥ 文章或俗士 道德爲真儒 汝且究聖訓 索玩忘朝脯 中童長一歲 頗能探奧區 相勉立大志 舉一反三隅 功名在天命 且可歸唐虞 所止在至善 始爲眞丈夫(牧隱詩藁 卷 35 敬僕來作此 因示中童)
 ⑦ 道情私欲髮容間 每爲兒曹叩兩端(牧隱詩藁 卷 13 述懷)
 ⑧ 姆負中童踏曉寒 來言夜半說慈顏… 達理不須工翰墨 持身只在重衣冠 汝名汝可爲師表 堯禪湯征自兩端(牧隱詩藁 卷 19 中童凌晨來)
 ⑨ 善童游學回… 人生重恩義 是日風化基 願言勿偷薄 保茲初秉彝(牧隱詩藁 卷 23 清風)
 ⑩ 形端影豈曲 源潔流斯清 修身可齊家 無物由不誠 荒淫喪本性 妄動傷元精 所以戒自斲 斲根本不榮 寢席燕安地 天命赫然明 奈之何忽諸 吾身所由生 或藝而玩之 禽獸其性情(牧隱 詩藁 卷 26 示子孫一篇)
 ⑪ 父母常懷愛子情 願無災害到公卿 謙謙自牧兼山卦 畫出須爲座右銘(牧隱詩藁 卷 28 示 諸子)
 ⑫ 太上正心術 次乃能文章 終爲君子儒 赫赫邦家光(牧隱詩藁 卷 34 示孫孟眇敬童)
 ⑬ 公 公則不私 心清無欲 些出至當 是謂正直 勤 勤則不怠 孜孜罔愆 職無廢弛 是謂忠賢 寬 寬則不苛 事皆仁厚 君子之德 慶流於後 信 信則不妄 持之以誠 堅守其意 毋自變更 (陽村先生文集 卷 23 銘類 題四字銘示兒子吉川君跽)

①부터 ⑬까지의 자료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①은 “요순임금 만들려면 삼대를 본받아야 하지만 자식에게 경서 한 권 가르침이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자녀의 공부 내용으로서 경서 공부를 중요시 하고 있다. ②에서는 “금보다 귀한 글(經)을 자손에 전해 주었네”라고 하여 재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경서가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이색이 예기의 내직의 ‘답이 울면 낮을 싣고 머리를 빗는다’ 한 말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주 문공의 「소학」에 대한 규모와 절목이 잘 구비됨을 생각하여, 여덟 구를 읊어 이루어서 자손들을 경계시

키고자 지은 시¹²⁾로서 “「대학」, 「소학」을 나눔은 각각 때를 따름이지만 덕을 쌓음에는 꼭 기초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자손들에게 고하노니 의당 근본을 힘써서 조용히 중용의 도를 따르고 굽은 길 다르지 말거라”라고 하여 「소학」¹³⁾의 내용을 근본으로 삼아서 중용의 도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④는 손자들에게 당부하는 시로서 “청풍은 두 갈래 머리에 불어오고 의기는 각기 절로 뛰어나다. 바라노니 너희들 가훈을 잘 지켜 시서를 힘써 크게 창성하기를”에서 시서(詩書)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⑤는 중손을 위해 그의 책에 글을 남긴 내용으로서, “만 권 서책을 읽어서 또한 어디에 쓰라 인륜 본체 밝혀서 충효를 실천할 뿐이다. 우선 「대학」 한 부의 책에 마음을 두어서 정정(靜定)을 한 다음 나머지를 구해라. 격물(格物) 치지(致智) 제가(齊家) 평천하(平天下)가 다 여기 있거니 타일에 내 한 말을 행여 경홀히 여기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에 대한 공부와 공부의 목적을 정정과 격물, 치지, 제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에서는 “문장으로는 혹 속된 선비가 되더라도 도덕으로는 참 유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앞으로 성인의 가르침을 궁구하며 낮이고 밤이고 사색하고 음미하라. 중용은 너보다 겨우 한 살 많지만 꽤나 심오한 곳을 탐구할 줄 아니 서로들 권면하여 큰 뜻을 세우고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도록 해야 한다. 공적과 명성은 천명에 달려 있으니 우선 지향할 목표는 바로 요순시대이다. 지어지선¹⁴⁾에 항상 뜻을 두어야만 비로소 참된 장부라 할 수 있다”라 하여, 자녀의 공부에서 도덕적 유자(儒者), 성인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할 것, 지선(至善)을 강조하고 있다.

⑦에서는 “도심과 사욕은 털끝 하나 차이일 뿐이라서 모양 아이들을 위해 꼭진히 타이르노라”라고 하여 자녀 교육에서 사욕을 멀리 할 것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⑧에서 “유모가 중용을 업고 차가운 새벽길을 걸어 와서 말하길 밤중에 어머니를 찾더라 한다… 사리를 알아야지 문필은 잘할 것 없거니와 몸가짐은 다만 의관을 중히 함에 있다. 네 이름은 네가 장차 사표도 될 수 있지만 순이 되고 걸이 됨에 절로 양극이 있다”라 하여 사리를 알 것,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12) 睡起聞雞聲 偶記初鳴嚙齋之語 因念文公小學規模 節目之備 吟成八句 以戒子孫云

13) 소학은 8세 내외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신서로 송나라의 주자의 제자 유자정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학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로 사학(四學), 향교, 서원, 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1991: 798).

14) 지어지선은 대학의 세 강령 중에 하나이다. 대학의 참된 골자가 되는 경은 3 강령과 8 조목으로 되어 있다. 3 강령은 ‘명덕을 분명하게 하라’, ‘백성을 새롭게 하라’, ‘지선에 있게 한다’이고, 8 조목은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정심, 성의, 치지, 격물이다.

은 의관을 바르게 하는 데서 비롯됨을 유아의 훈육 내용으로서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⑨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당부하는 시로서 “선동은 유학하는 데서 돌아왔고… 인생은 은의(恩義)를 중히 여기는 건데 이것을 풍화의 기초라 이르니 바라건대 경박하게 굴지 말아서 처음부터 도리를 잘 보전해야 한다”라 하여 은의를 중요시 여기며, 말을 경박하게 하지 말고, 인간의 도리(秉彝)를 잘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⑩은 자손들에게 훈계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서,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가 왜 굽겠는가? 근원이 맑으면 하루도 맑으니 수신을 해야 제가를 할 수 있으니, 무물은 불성한 데서 비롯된다¹⁵⁾. 황음한 것은 본성을 상실하게 하고 망녕된 행동은 정기를 손상시킨다. 때문에 스스로 깎음을 경계하나니 뿌리 깎인 나무는 무성하지 못한다. 안일하게 즐기는 잠자리 그 곳에도 천명은 현연히 밝게 비취 보니 어찌 행여 경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내 몸이 말미암아 나온 곳이거늘 혹시라도 친압하여 완롱한다면 바로 그제 금수의 성정이다”라고 하여 수신(修身)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성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의 성교육의 이념을 알 수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성행동은 본성을 상하게 하고 정기를 손상시킨다고 보았다. ⑪은 이색이 아들들에게 보여준 글로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니 부디 몸 다치지 말고 공경(公卿)이 되었으면, 검검자목의 뜻¹⁶⁾과 겸산괘의 의미¹⁷⁾를 새겨 항상 속에 간직하고 좌우명으로 삼아라”라는 내용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의 분수를 넘지 말라고 가르쳤음을 볼 수 있다. ⑫에서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이 우선 첫째요 문장을 잘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니 끝내는 군자다운 유자로 우뚝 서서 우리나라를 혁혁히 빛내도록 하라”라고 하여 바른 마음가짐, 군자됨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⑬은 권근이 아들에게 지어준 명(銘)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公), 공정하면 사가 없고 마음이 맑으면 욕심이 없다. 일이 지당한 데서 나오면 그것이 정직이다. 근(勤), 부지런하면 게을러지지 않는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여 어기지 말라. 직무를 폐하거나 해이하지 않는 것이 충현이다. 관(寬), 너그러우면 가혹하지 않게 되니, 일을 모두 인후하게 하라. 군자의 덕은 그 경사가 후세에 전해진다. 신(信), 미더우면 경망하지 않나니 유지하기를 성심으로 하여, 굳게 그 뜻을 지키고 스스로 변경하지 마라”라고 하여, 공정(公), 근면(勤), 관대(寬), 신의(信)를 자녀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정함은 사사로움이 없이 일을 이치에 맞고 매우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고, 근면한 것은 게을러지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맡은 바 일을 안 하거나 해이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관대한 것은 가혹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어질고 후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신

의 있게 하는 것은 경망하지 않게 성심으로 하며 뜻을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행해지는 교육의 원리적 측면에 관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⑭ 老翁無事政耽睡 稚子讀書宜著功 貴賤自分貽哲後 賢愚元在養蒙(牧隱詩藁 卷 13 誠季 子參軍長孫孟俞)

⑮ 學分大小各因時 積德須知必有基 立教明倫彌宇宙 嘉言善行析毫釐… 告爾子孫宜務本 從容中道莫趨岐(牧隱詩藁 卷 13 睡起聞雞聲偶記… 八九以戒子孫云)

⑯ 又復索我杖 便釋與口將 曲躬折旋走 如我行庭堂 目熟故身口 習爲君子方 里仁自成美 鮑臭蘭化香 (牧隱詩藁 卷 15 步履)

⑭에서는 “늙은이는 일 없으니 잠이나 즐길 뿐이지 아이들은 글 읽는데 의당 공을 들여야 한다. 귀천은 절로 밝은 천명을 받음으로 나뉘고 현우는 원래 어려서 기르는데 달려 있다”라 하여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⑮는 이색이 「소학」의 내용이 잘 구비되어 있음을 보고서 “대학 소학을 나눈은 각각 때를 따름이지만 적덕은 꼭 기초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입교 명륜은 우주 안에 가득히 채웠고 가인 선행은 아주 세밀히 분석하였네… 자손들에게 고하니 의당 근본을 힘써서 조용히 도를 따르고 굽은 길 따르지 말거라”라고 하여 덕을 쌓는 것에는 기초가 있다고 보고, 「소학」의 내용을 중시하고 있다. 주자의 소학서제에서 “아동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습관 형성이며 습관이 잘 형성되지만 하면 지(智)는 저절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여 근본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소학」에 제시된 내용들이 기본습관으로 형성되면 자연히 덕을 갖추게 된다고 보아, 기본습관형성을 아동훈육에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⑯에서는 “또다시 내 지팡이를 찾아와서는 문득 내게 주어 가지도록 하고 몸 굽혀 공손히 종종 걸음 하기를 내가 옛날 내 아버지께 하듯 한다. 눈으로 익힌 걸 몸으로 실천해서 군자가 되는 방도를 익히고 있다. 마을 풍속 어찌는 절로 아름답기에 포어 냄새가 난 초 향으로 변한다”라고 하여 아동이 부모의 일상적 행동을 눈으로 보고 익혀서 올바른 행동을 익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15) 중용 25장에 “진실함은 사물의 시종을 이루는 것이니, 진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실함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 君子誠之爲貴)”라 한데서 온 말이다.

16) 주역에 겸괘(謙卦) 초육(初六) 상(象)에 “지극히 겸손한 군자는 자신을 낮추어 몸가짐을 단속한다(謙謙君子 卑以自牧也)”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7) 겸산괘(謙山)는 곧 간괘(간괘)인데, 그 상사(상사)에 “산이 중첩된 것이 바로 간괘이니, 군자는 이 점괘를 보고서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으려고 다짐한다(兼山 艮 君子 以思不出其位)”에서 온 말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양육의 전통을 규명하기 위해 고려시대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을 고찰하였다. 자료 문헌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서 저술된 것으로, 이제현의 익재집, 이색의 목은집, 권근의 양촌집을 분석하였다. 이들 문헌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개념화와, 아동의 일상생활상, 아동양육 등 세 측면으로 당시의 아동양육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아동의 개념화와 일상생활상은 연구 (I)에서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양육주체, 아동보호, 아동교육의 세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주체

고려 말 문집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외조모, 누이가 양육 역할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주체에 대한 기대를 보면,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부성에 대해서는 자녀교육에서 아동의 본보기로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위의를 갖추어야 하며, 본인 자신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하는 개인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성은 당시의 학문으로서 유학과 관련된 자녀의 공부를 직접 지도하여 학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꼽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물질적 부양을 부성 역할로 기대하였다. 고려시대에 대한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는 부성의 역할로서 물질적 부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부양이외에 자녀의 학업을 이끌어가고, 자녀의 교육환경으로서의 부성 자신의 수기(修己)에 대한 기대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학업을 직접 이끌어 가는 행태는 가학(家學)의 전통에서 비롯된(이병길, 1975) 것으로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이 없었던 당시에는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또한 부성 특성으로 인자함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 문헌에서는 한 경우만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다른 자료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교훈서에서 나타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연구(신양재, 1995a)에서 부성은 위엄을 갖추면서 은혜롭고 인정 있는 엄(嚴)과 애(愛)가 병행하는 부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 고려의 다른 자료의 보강을 통해서 부성 특성에 대한 이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모성에 대해서는 인자함을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자애로우면서 일관성 있는 엄격한 자녀교육을 수행했다. 또한 자녀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라 교육시킬 수 있는 모성 능력을 강조했으며, 자녀가 학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성역할도 고려시대에 대한 전 연구(신양재, 1995c)는 젖먹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

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모성역할 내용이 비교적 자주 언급되었다. 조선시대 교훈서에서 나타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연구(신양재, 1995a)에서 모성은 부성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에 의로움, 엄격한 일관성과 동시에 자애로운 애정적인 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모성에 대한 역할 기대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몽고 간섭 이전에 저술된 문집과는 달리 고려 말에 저술된 문집에는 새로 수용된 성리학 이념이 보다 일상생활에 확고한 이념을 제시하면서 정착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리학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조선시대의 교훈서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 아동보호

아동보호차원 중에서 먼저 물리적 보호의 내용을 보면 아동의 식생활은 주식은 밥이었고, 다른 먹을거리로는 여름에는 오이, 가을에는 밤, 배, 배추 등의 과일류가, 추운 때에는 기름에 지진 떡과 장국이 제공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은 남아의 경우 할아버지와 함께 거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한여름 더위에는 유아가 원활한 체온조절을 할 수 있도록 옷을 벗고 놀게 하였다는 사례가 보였다. 또한 걷기 이전 유아가 걸음 걸이를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잡아 주었으며, 계단과 같은 다치기 쉬운 곳에서는 함께 해줌으로써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목욕이 아동에게 건강한 몸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고 보았고 아동에게 행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보호의 내용으로는 놀이를 함께 하여 심리적 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아동이 가는 장소에 대하여 금기를 두어서 낯선 장소에서 가질 수 있는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였고, 자녀의 건강과 안녕을 신에게 기원함으로써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 자신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다.

그 밖에 양육과 관련되는 당시의 관행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우선 자녀에 대하여 비칭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흔히 유아사망률이 높은 문화에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새로 태어난 영아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관행(Shaffer, 2000: 357)과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습속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름이외에 별개의 이름을 지어 통용하였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2, 2001: 80)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또한 문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이색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자료에서 당시의 이름을 짓는 관행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후 일년이 되는 날에 모임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시대에 관한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는 생후 7일 경에 아이 출생에 대한 하례(賀禮)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기가 출생하여 돌을 맞이한다는 것은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완전히 고비를 무사히 넘긴 계기가 되므로 이를 축하하게 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습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들잔치라 한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2001: 84). 그런데 본 연구의 자료로 보건대 고려에서도 돌을 기념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돌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기록이 없어 추후의 작업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태몽에 대한 양육관행이 문집에서 몇 건 진술되어 있었다. 태몽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여러 건 발견될(신양재, 1994b) 정도로 연원이 오래된 양육관행이라 할 수 있다. 태몽은 오래된 습속으로서, 민간신앙에서는 천지의 운행 변화는 물론 인간의 운명도 초자연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믿으며 인간의 운세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인과의 연속이라고 보아, 이러한 초자연적 존재의 의지를 단편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예측의 한 부분이 꿈으로 나타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1991: 28-29)고 하는데, 그러한 예로 태몽을 이해해 볼 수 있다.

3. 아동교육

아동교육은 가정에서 행해진 자녀 훈육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으며, 먼저 교육 내용을 보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학문을 통해서 중용의 도, 정정(靜定), 격물(格物), 치지(致智), 제가(齊家)를 이룰 것과 도덕적 유자, 지어지신을 추구할 것을 가르쳤다. 또한 사욕을 멀리하고, 어려서부터 사리를 알고 의관을 중심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은의를 중요시하며, 말을 경박하게 하지 말고 상도(常道)를 지키고, 바른 성생활을 하며, 겸손하며, 공정, 근면, 관대, 신의 있게 행동할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훈육내용들은 집단 이해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특징(Schwartz & Bilsky, 1990)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시대 문집을 분석한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는 자녀에게 청백한 행실, 문행(文行), 경서공부 등이 강조된 것에 비해서 성리학적 이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이념으로서 성리학이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에서 현명함은 어려서 기르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아 교육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덕은 기본습관형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는 근본배양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성리학의 수용 결과로서 주자를 따라 소학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도모한 것(이승원, 1990)으로 기본습관형성을 매우 중요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원리로서 아동은 부모의 일상적 행동을 눈으로 보고 익혀서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므로 부모 자신의 행동에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아동교육원리로서 유지되는데, 조선시대 동몽

교육의 방법적 원리에 대한 유점숙의 연구(1992)에서는 모방 원리로, 사소절을 분석한 손직수의 연구(1993)에서는 성장시 교육환경의 중요성, 소학을 분석한 이정덕과 송순의 연구(1993)에서는 모델제시를 통한 교육이라 하였고, 조선시대 교훈서를 분석한 연구(신양재, 1995a)에서도 아동의 행동형성이 일상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모는 자신의 언행과 주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훈육지식이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고려 말의 아동양육행태는 새로 수용되어 정착해가는 성리학의 영향이 아동교육의 측면과 그와 관련된 부모역할에서는 반영되어 나타났으나, 아동보호의 측면에서는 이전의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따라서 아동영역에 있어 사회 이념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반응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 전의 것을 완고하게 지속하려는 영역이 있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수의 제한된 자료 문헌을 가지고는 상세한 규명에는 제약이 있어 이후의 다른 자료가 꾸준히 보강되어 논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1). 한국 민속의 세계 5: 세시풍속 전승놀이.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영옥, 백혜리(2000). 조선시대 아동양육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4(1), 5-24.
- 김영찬(1982). 생활 문화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문미옥, 류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4.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益齋集. 서울: 솔출판사.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牧隱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陽村集. 서울: 솔출판사.
- 배종호(1988). 성리학의 수용과 그 의의.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백혜리(1999).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1). 유아교육연구, 19(2), 59-76.
- 백혜리(2000).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2). 아동학회지, 20(2), 67-81.
- 백혜리(2001). 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인식. 아동학회지, 22(2), 205-218.
- 변동명(1995). 고려후기 성리학수용 연구. 서울: 일조각.
- 손직수(1993).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 이계학 외 공저.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47-13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신양재(1994a). 고려시대 아동양육 연구: 고려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4), 49-162.

- 신양재(1994b).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아동기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5), 125-134.
- 신양재(1994c).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19-228.
- 신양재(1995a).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 자녀훈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1), 155-168.
- 신양재(1995b).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 연령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1), 183-195.
- 신양재(1995c). 고려시대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33-144.
- 신양재(2004a).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 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 *대한가정학회지*, 42(8), 147-167.
- 신양재(2004b).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I). *대한가정학회지*, 42(11), 17-30.
- 신양재, 김영주(1992).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249-260.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 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조복희 편. 아동발달의 이해*, 66-389. 서울: 교육과학사
- 유점숙(1992). 조선시대 동몽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 13(2), 113-128.
- 이병걸(1975). 여말선초의 과업교육 -서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7, 365-390.
- 이승원(1990). 목은 이색의 교육사상. *교육사학연구*, 2(3), 13-31.
- 이정덕, 송 순(1993).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57-16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철학회 편(1987). *한국철학사*. 서울: 동명사.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le, M. (1998). Culture in development.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 (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 11-33). New York: Routledge.
- D'Andrade, R., & Strauss, C. (1992).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kness, S., & Super, C. (1992). Parental ethnotheories in action.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c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373-39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ightfoot, C., & Valsiner, J. (1992). Parental belief systems under the influence: Social guidance of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cultur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c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393-414).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world, 2th*. Wadsworth.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891.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wadsworth.
- Super, C. M., & Harkness, S. (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 (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 34-47). New York: Routledge.

(2005년 8월 31일 접수, 2005년 11월 22일 채택)